

북한의 대학 혁신 연구*

교수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엄현숙**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학 변화를 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대학 교육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수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과 연계되어 국가 주도의 고등교육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대학 혁신을 꾀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나 교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움이 있다. 넷째, 학사-석사-박사로 연계되는 학위체계가 도입된 후에도 정작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대학 혁신의 현실적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고등교육 변화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북한, 대학, 혁신, 개혁, 고등교육

* 이 연구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5782).

**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학 변화를 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단순히 천연자원의 비교우위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사회가 아니다. 지식 및 지식인 창출은 국가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가 된 지 오래다. 지적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기반경제는 요구하는 인재상도 다르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대학이 서 있다.¹⁾ 현재 대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기관이자 세계 화적 추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교급이기 때문이다.²⁾

북한도 이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다.³⁾ 나아가 현 시대의 교육 혁명은 “본질상 교원혁명”⁴⁾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도되는 북한의 교육개혁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인재육성 정책과도 유사한 것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과학기술인재를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수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국가적 관심이 모이는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북한의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는 정권 유지의 중요 자산으로 활용될 엘리트 양성에

-
- 1) 권옥현 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성과관리 방향”(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2), 3쪽.
 - 2) 김유연·유성상, “북한 고등교육 학계에서 인식한 ‘세계교육발전 추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22권 4호(2021).
 - 3) 북한은 “오늘의 시대는 두뇌전, 지식전의 시대,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로 보고 있다. 김영수, 『대학입학원격시험』(평양: 교육신문사, 2016), 7쪽.
 - 4)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주체위업의 억년 청정함을 담보하는 핵심육성의 원종장이 되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2022년 10월 12일), 『로동신문』, 2022년 10월 13일.

집중되었거나⁵⁾ 고등교육의 정책 변화⁶⁾ 과학기술 분야⁷⁾ 고등교육기관으로의 대학⁸⁾, 북한의 학위 제도⁹⁾ 등에 대한 연구가 전부이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대학과 교수의 전문성에 관한 내용은 일부 논문들에서 단편적으로만 취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혁과 혁신에 관한 개념을 토대로 북한의 고등교육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요

- 5) 김수연,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징,”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3호(2020); 김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계 연구』(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6) 김유연·유성상, “북한 고등교육 학계에서 인식한 ‘세계 교육발전 추세,’” 『아시아 교육연구』, 제22권 4호(2021); 엄현숙,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3호(2020); 이인정, “김정은 시기 북한 고등교육 변화와 남북 대학 협력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70호(2021);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서울: 통일연구원, 2020).
- 7) 김경미,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북한의 원격교육체계 탐색: 「고등교육」 기사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5권 2호(2022); 김수연, “김정은 시대 북한 수학연구 동향 분석과 남북 수학협력 방안,”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1호(2022); 변학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통일과 평화』, 제10권 2호(2018); 이춘근·김종선·남달리,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초안)』(과천: 미래창조과학부, 2015); 이춘근·배용초, 『북한의 경제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촉진 방안』(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조정아·이춘근, “북한의 고등교육개혁과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1호(2008); 최현규·노경란, 『북한 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OPUS) 분석 연구, 2007~2016』(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 8) 정근식·채수홍 엮음,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과천: 진인진, 2018); 정근식 편,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과천: 진인진, 2017); 현인애, “북한판 카이스트, 이과대학 현주소,” 『북한』, 제567권(2019).
- 9) 엄현숙,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4호(2019), 77~112쪽; 한만길·손계림,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대학교육』, 제81호(1996), 50~60쪽.

구와 인재 공급 수요가 만들어 낸 대학 혁신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는 파악된 현황에 대하여 북한에서 학위 취득을 직접 경험하였던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교차 확인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고등교육 혁신을 향한 도전과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2. 개념적 논의

1) 개혁과 혁신

북한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것은 ① 자칭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② 글로벌 기준이라는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다.¹⁰⁾ 이를 토대로 김정은 시대 대학의 변화는 고등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당국과 대학에서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개혁(改革, Reform)과 혁신(革新, Innovation)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개혁은 “① 사람의 행동이나 구조를 바꿈으로써 개선을 하는 것, ② 사람의 행동, 또는 어떤 것의 구조 개선”(Cambridge Dictionary),

10) “높은 정치의식과 함께 개발, 창조, 혁신 등 진취적인 것을 체질화한 새 시대의 새 인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현시대는 “무엇이나 개변되고 달라지고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높은 목표와 이상을 지닐 것을 요구하는 거창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정론, “탁월한 수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로동신문』, 2022년 8월 22일.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민중국어사전)을 의미한다. 혁신은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방법, 또는 그러한 아이디어 또는 방법의 사용”(Cambridge Dictionary), “묵은 조직·풍속·습관 따위를 바꾸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민중국어사전)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사물, 또는 방법을 기존 제도에 처음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교육에서 혁신은 기존의 형태에서는 이질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상, 행동, 혹은 사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 정리하면 혁신(innovation)은 전통적인 관행으로부터 이질적인 새로운 시도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개혁(Education Reform)과 학교 혁신(School Innovation)이라는 용어를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있다. 박상완은 혁신을 ‘학교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과정 또는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¹¹⁾ 김홍주 등은 혁신이란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보다 잘 성취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내용, 및 방법, 학교 운영체제 및 교육여건 등을 점진적으로 고쳐서 새롭게 하고, 학교 구성원의 상호 학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창조적인 교육행위를 추구함으로써 전보다 향상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성취 수준을 높여주려는 평가’로 정의하였다.¹²⁾ 시몬스(Simmons)는 “개혁은 국가 수준에서의 주요 교육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혁신은 “학교 수준에서 국가 정책을 제한된 범위의 실험을 통해 교육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구분하고 혁신을 개혁보다는

11) 박상완, “개방형 자율학교의 학교혁신 사례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7권 2호(2009), 77~201쪽.

12) 김홍주 외, 『학교혁신 지원체계 분석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15~16쪽.

다소 국소적인 의미의 용어로 사용한다.¹³⁾ 그는 개혁을 국가의 중앙
통제적인 획일화된 명령과 지시에 따른 대규모적인 법적·행정적·재
정적 접근을 토대로 하며 이로 인해 개혁이 학교가 스스로 자생력을
높여 합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학교 혁신을 방해한다고 보았다.¹⁴⁾
유사한 관점에서 대학 개혁의 주도적 힘을 외부의 힘, 그중에서도 국
가권력에 의해 실현되어 왔다고 보고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 개혁을
“제1의 물결”, 학교가 주도하는 학교 혁신을 “제2의 물결”로 구분하
기도 한다.¹⁵⁾ 기타무라(喜多村) 역시 대학 개혁이란 대학에 직접 관련
된 기성의 제도, 기능, 구조 등의 부분 혹은 전체를 새로이 출현하는
역사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특정 이념에 따라 의도적·계획적
으로 개조하고 낡은 대학 속에 새로운 생명을 소생케 하는 사회적 노
력으로 보았다.¹⁶⁾ 하지만 그는 개혁을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국가주
도형’, ‘대학주도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혁신을 기성의 제도·관행
과는 이질적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거나 실험적인 시도를 도입하거
나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하면 개혁은 기성의 제도, 기능, 구조

13) J. Simmons, “Reforming education and society: The enduring quest,” in J. Simmons(ed.), *Better Schools: International lessons for reform* (NY: Praeger Publishers, 1983), p.9.

14) 강충열, “5.31 교육개혁이 학교교육 혁신에 미친 영향,” 『5.31 교육개혁과 학교 교육의 혁신』, 5.31 교육개혁 20주년 연속 세미나(2015), 57~58쪽.

15) R.G. Owens, *Organizational behavior: Instructional leadership and school reform*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1); A.H. Passow,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in school reform,” in T.J. Sergiovanni & J.H. Moore(eds.), *Schooling for tomorrow: Directing reforms to issues that count* (Needham Heights, Mass: Allyn & Bacon, 1989), pp.13~39.

16) 기타무라 가즈유키(喜多村和之), 『고등교육의 혁신』, 김도수 옮김(서울: 교육과 학사, 1995), 147쪽.

등의 부분 또는 전체를 의도적·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혁신은 학교 수준에서 ‘이질적’이고 ‘새로움’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논의를 볼 때 북한의 개혁적 시도가 학교의 혁신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중요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는 국가적 수준의 개혁이 학교 혁신으로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언급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¹⁷⁾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대학의 변화를 고등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당국과 대학의 혁신을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개혁과 혁신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에 있어 레빈(Levine)의 관점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레빈에 의하면 혁신을 그것을 가리키는 키워드인 ‘new’와 ‘different’를 나타내는 ‘change’와의 양쪽 요소가 결합된 의미로 보고 있다. 이에 혁신을 “전통적인 관행에서 빠져나오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으나 고유의 성질로의 새로움(newness)란 상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도의 대부분은 이미 과거에 존재한 시도나 구상을 오늘날 다시 한번 시도하려는 개조, 즉 ‘renovation’으로 보기도 한다.¹⁸⁾

레빈의 관점을 토대로 북한의 고등교육 개혁과 대학 혁신을 바라본다면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해진다. 그것은 국가 수준의 개혁 시도가 현행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대학 제도에 ‘일정의 유연성 도입’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상의 변혁을 피해 가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대

17) 조정아,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개혁 전략”, Online Series(2014.9.16).

18) 키타무라 가즈유키, 『고등교육의 혁신』, 169쪽.

학 혁신은 종래와는 다른 이질적이고도 새로운 유형의 정책을 기존 체제 내부 또는 외부에 도입해 그것에 의해 기존의 체제에 새로운 자극 내지는 변화를 파급시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대학 혁신은 기성의 제도의 결함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오히려 현 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보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재 중시 정책의 변화

최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구하는 북한이 교육 부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재교육체제의 강화이다. 이 영재교육체제에서 제1중학교는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영재교육을 비롯한 중등 및 고등교육 전략은 시대마다 그 양상을 달리한다.

김일성 시대에는 교육에 대한 양적 투자와 더불어 교육에 투입되는 지출에 소비적 관점이 우선되었다. 대표적으로 2023년 현재 만 16세인 북한 아동의 연령 기준이다. 이 기준은 1972년 10년제 고중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북한의 '로력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몇백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국가가 맡아서 공부시킨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¹⁹⁾ 김일성에 의하면 졸업을 만 17살로 하는 것은 “몇십만명의 로력이 놀고먹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라의 긴장한 로력사정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이는 사회주의 건설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었다.²⁰⁾ 이러한 인식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상품을

19) 김정일,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제11권(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453쪽.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²¹⁾ 더불어 영재론은 사회주의 교육의 평등주의의 원리에 어긋난 것으로 비난받던 것이었다. 김일성은 1968년 3월 14일, 10월 2일 연설에서 지능의 선천성은 물론 영재교육의 불필요를 명백히 하였다.²²⁾ 이로써 김일성 시대 북한의 일반 대중에게는 고등학교만 잘 다녀도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요구되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발전상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의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 시대는 영재교육에 토대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는 발전적 전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구별된다. 북한은 1980년대 영재교육체계가 정식 도입된 후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을 지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입학시험을 치게 하는 방법,²³⁾ 이른바 실력 본위에 기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영재교육체계인 제1중학교는 대학 진학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20) 김일성,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 『김일성 저작집』 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353쪽.

21) T. W. Scjultz,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1, No.1(1961), p.15.

22)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교육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8년 3월 14일),”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329쪽;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68년 10월 2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230~231쪽.

23) 김정일,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제11권(중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459쪽.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대학을 나옴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자격 외에도 간부라는 사회적 지위 획득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앙의 중요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에서 대학생 선발은 ① “수령과 당에 충실성 우선, ② 그 외 학과실의 우수성”,²⁴⁾ ③ 대학 졸업생의 배치에 당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고등교육의 목적이 ‘혁명적 권력집단’의 양성에 우선되는 것과 관련 있다.²⁵⁾ 이로써 북한에서 대학 입학은 졸업 후 사회적 지위 획득으로 연계되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²⁶⁾ 결과적으로 소위 영재교육을 우선으로 세워진 제1중학교 진학 열풍이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전략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은 대표적인 한계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중학교의 영재교육체제가 북한의 대학 특히는 교수의 전문성과 고등교육체계의 경직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영재교육체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개혁의 속도나 폭의 크기는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의무교육 연한이 1년 추가되면서 2024년 만 17세 중등교육 졸업도 현실화되었다. 또한 ‘그 수재 몇 명으로는 지식경제강

24) 김영수,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구성과 운영에 대한 연구』(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17), 27쪽.

25) 한만길 외,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2000), 113쪽.

26) 김수연,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성,”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3호 (2020), 49쪽.

국 건설에 필요한 인재 수요를 원만히 충족할 수 없다'는 인식과 ICT 발전에서 비롯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²⁷⁾ 전국적으로 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끌어올리되 세계적 추세를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명확한 시대적 요청도 있었다.²⁸⁾ 이에 김정은 시대는 영재교육체계를 토대로 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부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김정은 시대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은 ① 지식경제 추진과 대학교육발전전략 수립, ② 연구중심대학과 '일류급대학' 육성, ③ 대학원 확대와 대학의 연구 기능 강화, ④ 종합대학 육성 및 조정, ⑤ 전문대학의 승격과 개편, ⑥ 학과 통폐합 및 증설, ⑦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방법 개선, ⑧ 원격교육 확대 등이다.²⁹⁾ 이 정책에서 일류급 대학 육성, 대학원 확대 및 연구기능 강화는 교수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경직된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조선에 대한 리해,” 『조선신보』, 2020년 3월 6일.

28) 엄현숙,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4호(2019), 82~87쪽; 엄현숙,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3호(2020), 85쪽.

29)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서울: 통일연구원, 2020), 9쪽.

3. 대학 변화의 필요성

1)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인재 수요

시간이 갈수록 지식과 이익의 상관성이 높아지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이자 조건이 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능력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개별 단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인재를 많이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문화혁명 수행과 농촌진흥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과업이 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힌 사상으로,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론의 하나가 되었다.³⁰⁾ 이 서한에 의하면,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북한의 개별 단위와 지역 모두 3대 혁명화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자립으로 존재하는 강국으로 발전하자는 의미이다.³¹⁾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표현은 2021년 1월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표현은 2021년 11월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명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발전론은 사람들의 향상된 물질 문화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다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³²⁾ 그 내용은 ① 정치와 국방 건설을 중시하되 경제와 문화 발전

30) 임수호, “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 158호(2022), 1쪽.

31) 김정은,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주체 110(2021)년 11월 18일],” 『로동신문』, 2021년 11월 19일.

에 힘을 넣는 것이며, ②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③ 지방 건설, 농촌건설을 통해 모든 지역을 고르고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다.³²⁾ 이에 따른 요구는 동시적이며 균형 있게, 그리고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에 있다.³³⁾ 그리고 이 동시적이며 균형적 발전에 과학기술 성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면서 인재 전략,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었다.

2022년 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중 교육부문을 살펴보면 교육의 목적은 새 세대를 혁명적 인재, 창조적 인재, 사회주의 계승자를 키우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① 영재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와 국방을 비롯한 여러 부문을 책임지고 견인할 수 있는, ② 과학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③ 지방과 농촌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④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³⁴⁾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네 가지는 199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김정은 시기 고등교육법, 보통교육법, 교원법 제정,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고등교육체계 개선 등 제도와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 늘 언급되어 오던 북한 교육 발전의 단골 소재라는 점에서 큰 울림은 없다. 다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발전된 나라들의

32)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의 본질,” 『로동신문』, 2021년 11월 30일.

33)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의 기본내용,” 『로동신문』, 2021년 12월 2일.

34)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의 기본요구,” 『로동신문』, 2021년 12월 4일.

35)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자,” 『로동신문』, 2022년 9월 23일.

교육수준을 따라서는 것”을 북한식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전진이자 미래의 담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언급할 수 있다.³⁶⁾ 실제로 김정은 시기 이루어진 교육개혁은 ‘세계적 추세’,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지식경제시대, 정보화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⁷⁾

하지만 2022년 9월 시정연설은 지금의 교육이 실천 능력을 갖춘 쓸모 있는 인재들을 키워 내는 데 지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 시정연설에 의하면, 지금까지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교육, 점수평가를 위한 교육에 국한되어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특히 12년제 의무교육 10년차에도 여전히 교육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북한 당국의 고민을 깊게 한다.³⁸⁾ 북한 당국의 고민은 2023년 6월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의정으로 토의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회의에서 토의된 두 번째 의정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이다. ‘획기적 조치’는 바로 세계적 추세에 맞게 선진 교육을 줄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다.³⁹⁾ 결과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37)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42쪽; 엄현숙,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4호(2019), 86~90쪽.

38)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7일.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6월 19일.

가 국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등교육체계의 경직성

김정은 시대 북한은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을 단시일에 국제적 추세에 맞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성장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 체계를 완비”⁴⁰⁾하고 대학 간, 교수 간 경쟁체제 강화를 주문하였다. 이는 제1중학교를 통해 우수한 학습 능력을 소유한 학생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이 고스란히 중요 대학으로 진학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당국 주도의 개혁적 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대학 구조조정, 교육과정 조정, 원격대학 확대 등 고등교육 분야의 개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⁴¹⁾ 구체적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연구중심, 대학원중심, 학부중심 등 대학의 제도적 다양성 확대에 주력하여 왔다. 2014년 8월 제13차 전국 교육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는 김정은 시대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담화문에서 김정은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완비, 개선하는 것”⁴²⁾을 새 세기 교육혁명 수행의 과업으로 제시하였

4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교육신문』, 2014년 9월 11일.

41)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20쪽.

다. 이 담화문에서 북한은 세계적 추세에 맞으면서도 요구되는 인재를 더 많이 키워 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체제 정비를 강조한다.⁴³⁾ 그것은 우선, 고등교육체제의 개선을 위해 ① 학제와 학부, 학과의 강좌들을 정리, ② 박사원이 없는 대학들에 지도 역량이 준비되는 데 따라 박사원을 내오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제도를 내오는 문제, ③ 대학들을 종합대학화, 일원화 ④ 정규화된 직업기술교육체제를 확립할 데 대하여 등의 여러 과업이 제시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담화문 이후 북한에서는 전국의 수십 개 대학, 수백여 개에 달하는 학과들이 정리, 수십여 개의 첨단학과들을 새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일부 학과들에서 본과 과정과 박사원 석사반 과정을 직접 연결하는 연속 고등교육 체제를 확대하여 학사, 석사, 박사 제도가 2015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것, 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한 개 대학을 모체로 여러 대학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종합대학의 설립,⁴⁴⁾ 전문학교들을 대학

4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교육신문』, 2014년 9월 11일.

43) 북한 고등교육체제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로, 대학생 수가 학령인구당 입학률 10% 미만인 엘리트형 교육체제이다. 또한, 대학당 평균 학생수가 1천 명 정도로 적다. 둘째로, 사립대학이 없고 전부 국립대학이자 단과대학 중심이다. 셋째로, 재정 측면에서 무상교육으로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다. 조경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210~212쪽.

44) 평양건설건재대학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2013년 1월에 개편한 이래 평양철도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기계대학, 원산농업대학을 부문별 종합대학으로 그 명칭도 평양철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으로 각각 바꾸고 승격시킨 것이다. 또한 함흥컴퓨터기술대학과 함흥경공업대학, 함흥건설대학을 통합해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이 됐다.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

들에 통합 내지는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끝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10여 개 중요 대학들에 원격교육체계가 더욱 확대되는 등의 대학 개혁의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⁴⁵⁾

둘째로, 북한은 2019년 1월부터 매달 각 도의 교육에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였다. 그 방법은 도의 교육을 4개 부문(초등 및 중등 사업부문, 교원양성사업부문, 고등교육사업부문, 교육조건 보장사업부문)으로 나누고 항목별 평가지표들과 점수를 규정하여 도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도별 교육 판정에서 대학 졸업생의 박사원 입학률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 평가 기준이 대학 졸업생들의 박사원 입학 정형 및, 고등교육 사업부문에서 박사원 입학 정형이며 이를 통해 교원 진영의 강화도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⁴⁶⁾은 그만큼 진학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4년제 이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15% 미만⁴⁷⁾에서 26.8%로⁴⁸⁾ 당국 차원에서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라고 표방

평양미술종합대학, 국방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등도 종합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역별로는 한개 대학을 모체로 거기에 여러 대학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황북종합대학, 평북종합대학 등으로 지역의 기존 대학을 개편하기도 했다. 황북종합대학은 사리원지질대학을 모체로 하여 황해북도에 소재한 강건의학대학, 공업대학, 고려약학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 제2사범대학, 교원대학이 통합되었다.

45) 허광일, “김정은 원수님의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개혁,” 『조선신보』, 2015년 10월 7일.

46) “교육사업에서 어느 도가 앞서나가고 있는가?” 『로동신문』, 2019년 6월 16일.

47) 통계청 보도자료 2011,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miri>.

〈표 1〉 고등교육체계 모델

구분	엘리트형	대중화형	보편화형
재학생 비율	15%까지	15~50%	50% 이상
고등교육 기회	소수자의 특권	상대적 다수의 권리	만인의 의무
육성 대상	지배계급	전문가, 사회지도층	전 국민
교과과정	경직	유연	비구조적
학생 유형	동일 연령층	다양화, 휴학증가	성인 재학생 급증
기관 특성	동질성 (국립대학 주도)	다양성 (사립대학 주도)	극도의 다양성 (성인대학 주도)
규모	2,000~3,000명	수만 명	무제한

자료: 기타무라 가즈유키, 『고등교육의 혁신』, 33~34쪽.

하나 〈표 1〉의 고등교육체계 모델의 기준에 따르면 엘리트형의 경직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기관이다. J. E. 스테니어(J. E. Steiner)에 의하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연구중심대학의 중요한 역할 없이 어떠한 나라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⁴⁹⁾ 세계적으로도 연구중심대학이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을 위한 강력한 연구 기반이며,⁵⁰⁾ 이에 연구, 교육, 학습의 통합이 중요해진다. 연구중심대학은 21세기의 핵심적 기관으로서 지식의 창조 및 보급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학문적 세계화(academic globalization)의 중심이자 학문과 학자, 새로운 지식 경제의 연합체이다.⁵¹⁾ 연구중심

html?fn=e14df6300214231055214&rs=/assist/synap/preview(검색일: 2022년 1월 24일).

48) UNESC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ducation and Literacy”(2018).

49) Philip G. Altbach 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도전』, 신경철 외 옮김 (파주: 교육과학사, 2007), 215쪽.

50) 고용 외, 『연구중심대학의 형성과 발전』(서울: 문음사, 1999), 19쪽.

대학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열정적이고 똑똑한 학생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수진, 탄탄한 재정, 자유로운 학문 탐구는 그 핵심이 된다. 가이거(Geiger)는 그 특징을 교수·재정·학생의 세 범주로 분류한다. 그에 의하면 연구중심대학의 교수는 연구자로 훈련받은 정규직 교수들로 구성된다. 대학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다. 학생이야말로 대학의 본질적인 부문으로 매우 선별된 인원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또한 대학 보편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연구중심대학을 설립하기도 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⁵³⁾

북한의 경우 모든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립대학 체제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생 수를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경비가 적게 드는 의무교육과 직장인 대상 대중교육 다시 말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있다.⁵⁴⁾ 1977년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장점을 ① 현직 노동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자, ② 현직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③ 생산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노력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51) Philip G. Altbach 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도전』, 13쪽.

52) 위의 책, 271~272쪽.

53) 권옥현 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성과관리 방향: BK21 사업을 중심으로』, 11쪽.

54) 김계수·이춘근,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53쪽.

4. 대학 혁신의 특징과 한계

1) 대학 혁신의 제약 요인

앞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김정은 시대 북한은 대학을 단시일에 국제적 추세에 맞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성장시키려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본 연구는 2015년 고등교육 개혁의 출발로 된 학사-석사-박사의 학위체계 도입을 주목한다.⁵⁵⁾ 그것은 학위체계 도입이 우수한 학생들을 연속반, 즉 박사원으로 연계시키는 한편, 대학 내 학위가 없는 교수로 하여금 학위 취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⁵⁶⁾

북한의 대학 혁신이 갖는 특징은 우선, 사회주의 교육 제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그 예로 ① 대학의 입학생 총원

55)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 전달된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11일 참조.

56) 북한의 고등교육법은 2011년 12월 채택되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교육일군대렬을 학위, 학직소유자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에 의하면, 교원의 자격은 “대학본과교육, 박사원교육, 대학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에 주며, “교원은 전공분야의 학위를 소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북한 법령집 하』(서울: 국가정보원, 2020), 514, 518쪽]. 김정은 시대 이전까지 북한에서 학위는 우리의 대학원에 해당하는 박사원을 통하여 수여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부의 학사학위가 북한에는 없다. 그 대신 북한의 대학 학부과정을 졸업하면, 기사 또는 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에 기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에, 전문가는 인문사회 분야 학위에 해당한다. 2018년 이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증과 함께 주던 자격증이 사라지고 사회 기관에 배치 후 자격을 취득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나 졸업생 취업이 국가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②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이 크지 않으며, ③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체계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 의도와 행위자의 선택 간의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⁵⁷⁾ 북한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대학과 대학원 연속교육을 연계시키려 한다. 하지만 정작 우수한 인재들은 대학원 졸업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보다 대학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 당 간부로 출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그 인재들이 대학원 진학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박사원을 다녔던 탈북민 인터뷰 중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 가려고 하고, 그게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한데, 그냥 일반반에 가서 공부 좀 하다가. 북한은 공부한 기술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기사가 되면 월급으로 살지 못해. 어떻게 해서나 간부가 되어야 한다고, 남자들은 그런 의식이 강해 가지고 군사 복무도 해서 뭐 입당도 하겠다 이런 경력을 갖추는 데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여, 중앙대, 청진

제1중학교를 통해 영재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중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북한의 중요 대학들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재반 또는 연속반이 있다. 연속반의 경우 제1중학교 졸업생들은 박사원까지 연계된다. 하지만, 결과는 정작 제1중학교 수재반 학생들은 그 연속반

57)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149~150쪽 참조.

가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1중학교로 진학한 이유는 대학 졸업 후 연구자로 살기보다는 이른바 ‘혁명적 권력집단’으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학 혁신의 특징은 교육 개혁을 “본질상 교원혁명”⁵⁸⁾으로 보고 대학교수의 전문성을 높이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해 오는 과정에 정부 연구소 비중이 상당히 높다. 기존 구소련의 체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많은 연구가 의도적으로 대학의 외부에 집중되어 왔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 중점 기관이며 연구는 특별한 기관에서 일임하던 소련식 고등교육 모델을 추구하였다. 이로써 연구는 대학의 교수와 학습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에 대학은 엘리트 층원과 배치의 중심으로, 대학교수 대부분은 석박사 학위 취득과 관계없이 임용될 수 있었다. 여기에 학생들 대부분이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여타 국가와 달리, 북한의 경우 학생들은 이미 대학생 층원 과정이 졸업 후 배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연구는 대학의 교수와 학습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연구진도 대학의 외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로써 소수의 대학에 박사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연구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교육 중심 학부과정이다. 이는 북한의 학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박사학위가 박사원생보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강좌장, 교수, 연구자에게 수여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 부문 박사학위 수여자 중 대학교수가 34.4%, 강좌장 25.0%인

58)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주체위업의 억년 청정함을 담보하는 핵심육성의 원중장이 되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돐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2022년 10월 12일).

것에 반하여 박사원생이 1.2%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⁵⁹⁾ 기본적으로 박사학위는 북한의 최고 학술 수준으로 일종의 영예 칭호⁶⁰⁾로 기능하였고 중앙대학 일부에만 학위, 학직 소유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1980년 제정된 『대학관리규범』 속 “대학교원들은 반드시 전공분야의 학위학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⁶¹⁾

김정은 시대 과학연구를 향한 당국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취득 양상은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박사학위자 배출 규모에 있어 김일성 종합대학의 독주가 눈에 띄는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학위자 간, 대학 간 격차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는 중앙 급 대학과 전문 분야별 대학, 지방대학으로 구분되는 유형별 특성으로부터 평양 소재 중앙 급 대학들에 박사원과 지도 역량이 포진된 반면,⁶²⁾ 일부 지역의 경우 박사원이 있는 한두 개 대학을 중심으로 박사가 배출되는 실정에서 비롯된다.

결과 단시일 내에 국제적 추세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려는 북한의 대학 개혁은 다음의 한계를 노출한다. 그것은 첫째로, 연속교육체계를 중시하는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대학 졸업자 중 박사원

59) 엄현숙,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4호(2019), 100쪽.

60) 한만길·손계림,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대학교육』, 제81호(1996), 58쪽.

61) 한만길 외,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129쪽.

62) 『전화번호책』에 나와 있는 대학들 가운데 평양시에 있는 24개 대학 중 박사원 번호가 있는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설건축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 조선체육대학 등 8개 대학뿐이다. 그 외 지방대학은 교환, 학장, 당비서, 간부과, 경리부, 교무부 정도만 확인된다.

입학률이 저조하다. 둘째로, 북한은 대학 혁신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아닌 기존 교수자의 학위 취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학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낮은 인센티브

북한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과의 인터뷰는 대학 혁신의 한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한다.⁶³⁾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북한 내 교수의 위상과 아울러 학위를 취득하게 된 동기 등을 통해 대학 혁신의 현실적 문제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북한에서 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경험자를 주요 행위자로 설정한 이유는 북한 당국의 개혁 의지와 개별적 교수자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로써 대학 혁신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

〈표 2〉 연구 대상자 목록

	대상자 구분	대학 구분	기간	성별	지역
1	K1	중앙급(경험)	6년	여	평양
2	K2	중앙급(교수)	6년	여	평양
3	K3	지방급(교수)	10년	남	청진
4	B1	지방급(경험)	7년	남	혜산
5	G1	중앙급(경험)	5년	여	평양
6	G2	중앙급(경험)	5년	남	청진

63) 이 인터뷰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7S1A3A2065782)로 인터뷰 및 해당 내용은 경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절차와 동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1) 학위 및 학위자에 대한 인식

김정은 시대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학위 수여자들과 그들의 연구 업적 및 공로가 북한 신문 지면을 장식한다. 이에 사회적으로 학위에 대한 인식과 학위를 취득한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에서 학위에 대한 주변의 인식은 일종의 명예칭호(K1)로 물질적 대우보다는 정치 사회적 지위나 학문적 성취도를 나타내는 징표로 작용한다. 평양에서 교수생활을 한 K2는 학위 취득 자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그것은 입당 순서를 고려할 때이다. 학위가 없는 교원들은 학위자들을 부러워하며 학위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학위를 학문적 성취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겼다. 이는 다음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서는 대학기간에 공부를 좀 잘했나? 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본인이 먹고사는 것에 모두 신경을 쓸 뿐 주변에 대한 관심은 없다. _K3

교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에 대한 학생과 주변의 관심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 학생들의 경우 교육이나 연구 쪽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에 관심이 적다.

교원의 학위 취득에 대하여 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_K2

굳이 왜 하는 인식도 있고,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인식도 있었다.

학계나 교육 연구 계통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가끔
하급생들이 대단하다고, 부러워하는 반응이 강하였다. _G1

학위 취득에 관심이 적은 대표적 이유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을 해
결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에서 전문가적 역량과 경제개혁의 여러 단계들이 수행되면서
학위소유자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사회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
전히 북한에서 학위소유자들의 생활환경은 여타 간부나 시장 종사자
들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_K1

별로 관심이 없다. 대부분 학위 취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지 못한
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대학원생들이 대부
분이다. 그동안 누가 더 많이 돈을 벌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_K3

학위자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대체로 ‘존경’하는 분위기였으나 학위자
의 재산형편, 즉 잘 사느냐에 따라 엇갈린 시선이 존재했다. _B1

주변의 관심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으로, 독보적인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학위는 연구자로, 교수자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학위를 취득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학교원이나 연구사들로서 옹당히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당조직들에서 “교원들이 박사, 준박사 학위가 없으면 교원자격
이 없다”는 강조를 하면서 교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하는

등 고등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실력을 중시하는 바람이
불었다 _K2

교수를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의 교수들은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지위도 분명치
않다. 학위소유자를 존경하지만 학위가 어떤 지위를 부여해준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연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넘어야 하는 산 같
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_G2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 출신 학위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적은 관계로 학위자는 대학의
자랑이자 존경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선호되는 것은 중앙대학에서 학
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중앙대학이 가장 최신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
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과 중앙의 학위자 지위가 다르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지
방은 학위자가 많지 않아 학위자들의 지위가 더 높게 느껴진다. 일반
적으로 지방에서 사는 분들은 “학위자도 배고프긴 마찬가지이다. 학
위취득해서 뭘 하나?” 하지만, 이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는 멀찍이 떨
어져 사는 사람들의 얘기다. 허나, 실제로 지방의 대학들에 갔을 때
대학에 몇 명뿐인 학위자들에 대한 자랑과 존경심은 중앙보다 더 높
다는 것을 느꼈다. _K2

지방의 학위자의 경우 중앙의 학위자에 비해 학위 취득이 매우 어렵
고 힘들기 때문에 지방 학위자의 경우 대체로 실력을 인정하는 편이

다. 그러나 중앙의 학위자의 경우 주로 명문대 출신들이어서, 지방 학위자에 비해 암묵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_B1

특히 지방의 경우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학위를 취득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료 교원들보다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다. 학위취득 환경과 조건이 매우 열악한 북한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의 경우 실력은 물론 경제력까지 갖춰야 하고, 강한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_B1

다만, 연구 주제의 현실성을 놓고는 지방 연구자와 중앙 연구자 간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아래의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 대학의 논문의 경우 대부분이 현장과 결합 되어 있는 실천형 논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론적 깊이가 부족하고 뭔가 억지스러운 논문이 많다는것이 학계의 평입니다. 다만 중앙의 논문은 외국의 선진기술을 번역해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_G2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위 취득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다. 물

론 국가 차원에서 여러 차별적이고 특혜적인 측면에서 학위 취득을 유도하고 대학별, 교수별 경쟁을 붙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학위를 취득한 교수의 경우 그들의 학위를 위한 일련의 과정과 그 성과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래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학위 취득이 복한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학위취득 전에는 생활총화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겠다”는 식의 결의를 다지곤 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발언일 뿐이다. 오히려 대학교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실력이 없는, 자격미달의 교원이라는 수치심이 더 많았다. _K2

학위 취득은 자기 계발을 위한 사업이며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공정이라고 생각하였다. _G1

그것은 우선, 교수가 된 이상 학위취득이 필수로 되었다는 인식의 공통성이다.

학위취득을 반대하는 사람을 없지만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연구부문이라든가 교육부분에서 종사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다. 다만 20대 박사라든가 시대를 초월한 학위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학생활부터 국가과학원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생활하여서 학위는 나이에 따라 쌓이는 성과처럼 보는 경향이 강했다. _G2

또한, 학위는 국가가 주나 취득은 결국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등 학

위 취득으로 인한 부담의 가중에도 교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를 어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학위는 국가가 준다고 보다는 자비로 취득한다는 개념이 굳어진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대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_G2

오히려 박사가 되면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학 강의와 논문 집필의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위는 불편함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들에서도 학위가 없는 신입연구원들을 사회동원을 비롯한 각종 노력동원에 내보내기 때문에 조기 학위취득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했다. _G2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선택을 하거나, 대학원 기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등 본인을 위해 학위 취득을 하거나 한다. 북한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_K3

이상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전반적으로 국가 주도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공통으로 관찰되었으며, 학위에 대한 주변과 교내 인식은 중앙과 지방의 경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위 취득이 군 입대를 기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2) 학위 취득에 따른 대우

북한의 경우 학위 취득 여부에 따라 당국 차원의 차별적인 공급체계와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병

원 진료 대상으로 의료 혜택도 주어진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탈북민들은 그 대우를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로, 공급체계에서의 대우이다. 공급체계에는 주택 공급, 물자 공급, 이동 편의 제공이 속한다. 이는 박사급과 석박사 공통으로 나눌 수 있다.

박사학위 이상이 있을시 진급이 빨랐으며 박사에 대해서는 대외 출장 시 차표를 떼지 않고 기차 침대 전용칸 이용이 가능했다. _G1

교수 급수의 박사들은 3명이 한 대의 차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차를 보장해주고 운전수, 휘발유도 보장해주었다. 박사들은 이 차를 타고 도서관, 병원, 현장 연구를 다닐 수 있었다. _K2

국가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주택건설 같은 것을 진행하면 학위 소유자가 훨씬 배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_G1, G2, K2

대학교원들 중 준박사 이상의 학위자들에게는 물자공급소 카드를 지급하였다. 물자공급소에 가서 술, 기름, 양복천 등의 물자를 국정가격으로 구입하였다. _K2

둘째로, 임금 우대 및 병원 진료, 주택 우선 제공이다.

학위자는 학계나 연구소, 교육기관에 배치받아 일하게 되면 생활비 외에 500원(석사인 경우, 박사는 잘 모름)을 학위생활비로 더 내주었다.

_G1

박사가 되면 평양의학대학 진료과, 석사가 되면 김만유병원 진료과 대상이 된다. _G1

이상의 제도적 대우와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의 인정은 힘든 과정을 겪은 것에 대한 보람을 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각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사돈집에서는 신랑감이 학위자인데 대하여 긍지를 가지곤 하였다. 학위를 가진 여성들에 대해서는 탁아소, 유치원선생들이 “박사엄마, 석사엄마”하면서 존경을 가지고 불러주곤 하여 자녀들이 엄마를 자랑하곤 하였다. _K2

학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일반적 시선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적이고 교양 있으며 점잖을 것 같다는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위를 소유한 사람들은 사회적 시선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함을 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과학지구는 거의 조용하고 사람들이 부딪혀도 가볍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북한의 일반적인 지역들과는 다른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_G2

배치 후 직장에 혼자 밖에 없는 학위소유자라는 근거 없는 자긍심만 가득했다. _G1

그러나 제도적으로 여러 차원의 우대를 한다고는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 휘발유 사정 등의 이유로 효력을 발휘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G 1), 이에 학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우는 그리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있다. 물론 석사, 박사를 받으면 석사비, 박사비를 월급에 포함

시켜 줌으로써 월급도 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의 활성화되면서 부터는 북한 원화가 가치가 없어지면서 그마저도 사라졌다(K 2).

김정은 시대로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중시되고 덩달아 학위나 학직을 가진 교수에 대한 특별 공급이 찾아지면서 사회적 지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주택 공급이 학위 소유자 및 대학 교수의 장래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의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박사면 뭐하니, 박사가 밥 먹여 주니 하는 입장이었지만, 2000년 이후부터 특히 2013년 10월 300여 세대의 최상급 살림집을 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배정되었다. 2017년 4월 새로 일떠선 러명거리의 살림집 1,700여 세대를 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배정한 것을 기회로 교원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 주택들은 교원을 그만두면 그 주택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나 자식 중에 김일성대 교원이 되면 그냥 살 수 있으므로 대를 이어 교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추세가 되기도 하였다. _G1

셋째로, 군대 면제, 입당, 지방 기피, 승진 등의 특혜는 학위 취득을 유인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석사학위를 하는 목적이 군대에 가지 않거나, 취직이 잘 되지 않아서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며 석박사 학위자 대부분은 군대에 가지 않아 출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 외 대우는 별로 없다. _K3

대학교원이나 연구사들의 급수상향 평가에서 도움이 된다. _K2

학위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없었고, 교원급수가 한 등급 올려주는 데, 교원급수에 따라 봉급이 올라갑니다. 그 외에 학위를 취득한 비당원의 경우 입당이 한결 쉬워지고, 당원의 경우 승진에 유리합니다. 교원 급수 외에 입당이나 승진 등에 있어 학위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_B1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10가지에 달하는 국가적 혜택은 분명 학위 취득을 유인하는 훌륭한 기제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의 혜택을 바라고 학위를 취득하기에는 많은 부담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학위 취득의 어려움을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과거에는 학위를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연구를 하더라도 이를 위한 분석 자료 또는 참고할 자료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북한은 해외 최신 자료 유입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7년과 연구생 3년, 총 10년의 학업/연구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대체로 제공되기 어렵다. 대학교원으로 배치 받고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교육과 연구 성과가 일정부분 인정이 됐을 경우, 석사논문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젊은 교원들 중 석·박사학위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_K1

북한은 외부자료반입금지의 나라이므로 자본주의 연구논문작성 때에 자료가 너무 없거나 5-10년 전 자료만이 있는 것이 어려웠던 점이다.

_G1

다음은, 결국은 논문 통과에 드는 노력과 경제적 지원이다. 과정을 다녔을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수료에 머무른다.

논문이 통과되려면 여러 명의 심사교수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논문도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매 사람에게 어느 정도 뇌물을 주어야 함. 또한 현장 도입이 더 어려운 문제이다. 대부분 수료로 마친다. _K3

학위 취득을 위한 수강과 논문집필보다 각종 과제물 수행, 박사원 등 교 시 비용부담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것이 가장 어려웠다. _B1

끝으로, 어렵게 논문을 쓰더라도 학위를 받기까지의 과정의 어려움이다. 지도 교수 및 심사자와의 관계, 논문 검색 및 자료 탐색 시스템의 한계도 동시에 작용한다.

논문은 쓰는 것보다 통과 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 북한에는 논문표절에 대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나왔던 내용을 유사하게 변형해서 집필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 선진논문을 제일 먼저 번역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심사위원 중에 최신기술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으면 심사가 어렵고 한번 부결된 논문을 계속해서 제출하는 것도 어렵다. 때문에 미리 권위자를 만나 허락에 가까운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_G2

정리하면 우선, 대학을 마친 후 학위를 취득하려고 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학위 취득 과정에서는 ① 중앙과 지방 간 서열화 모습이 보이며, ② 학위에 부익부, 빈익빈의 양상이 나

타나며, ③ 학문 분야 간 격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학은 정형화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에 집중된 관계로 학생들이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 지목된다. 여기에 국가적으로 통일된 봉급 체계는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장 이동에 제약이 있다. 이에 더 나은 대학으로 옮겨 다니는 이른바 ‘연구 인력 시장’ 형성에 제약이 따르며 지속적으로 학위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내지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제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 의지는 국제적 추세에 맞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성장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정작 혁신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대학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학 변화를 혁신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는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과 연계하여 ‘혁신’을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고등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고등교육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파악된 현황은 북한에서 학위 취득 경험과의 교차 확인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주도한 고등교육 개혁은 종래와 다른 이질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정책을 기본의 체제 내부에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존의 체제에 새로운 자극 내지는 변화를 파급시켜 나가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현직 교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시일 내에 국제적 추세에 맞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려는 북한의 대학 개혁은 다음의 한계를 노출한다. 그것은 첫째로, 연속교육체계를 중시하는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대학 졸업자 중 박사원 입학률이 저조하다. 둘째로, 북한은 대학 혁신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아닌 기존 교수자의 학위 취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과 연계되어 국가 주도의 고등교육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대학 혁신을 꾀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나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학사-석사-박사로 연계되는 학위체계가 도입된 후에도 정작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과 연계하여 북한의 고등교육 혁신을 주목한다는 점, 여러 자료의 교차 검토를 통해 혁신의 내용을 접근하였다는 점, 학위 취득 경험을 가진 탈북민과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나아가 북한 대학의 혁신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학의 혁신과 연관된 사례 발굴과 자료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 접수: 2월 17일 / 수정: 6월 9일 / 채택: 8월 1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영수,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구성과 운영에 대한 연구』(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17).

2) 논문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68년 10월 2일),” 『김일성 저작선집』 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230~231쪽.

김일성,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 『김일성 저작집』 27권(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1984), 353쪽.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교육부 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8년 3월 14일),”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329쪽

김정일,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11권』(중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343, 458쪽.

3) 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교육신문』, 2014년 9월 11일.

“교육사업에서 어느 도가 앞서나가고 있는가?” 『로동신문』, 2019년 6월 16일.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주체위업의 억년 청정함을 담보하는 핵심육성의 원종장이 되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돐 기념행사에서 한 연설(2022년 10월 12일), 『로동신문』, 2022년 10월 13일.

_____,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 제5

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주체 110(2021)년 11월 18일], 『로동신문』, 2021년 11월 19일.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자,” 『로동신문』, 2022년 9월 23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사상의 본질,” 『로동신문』, 2021년 11월 30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의 기본내용,” 『로동신문』, 2021년 12월 2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의 기본요구,” 『로동신문』, 2021년 12월 4일.

정론, “탁월한 수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로동신문』, 2022년 8월 22일.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 전달된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3년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 은동지의 시정연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조선에 대한 리해,” 『조선신보』, 2020년 3월 6일.

허광일, “김정은 원수님의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개혁,” 『조선신보』, 2015년 10월 7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고용 외, 『연구중심대학의 형성과 발전』(서울: 문음사, 1999).

김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제 연구』(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영수, 『대학입학원격시험』(평양: 교육신문사, 2016).

김홍주 외, 『학교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5).

이춘근·김종선·남달리,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초안)』(과천: 미래창조과학부, 2015).

이춘근·배용초, 『북한의 경제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촉진 방안』(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근식 엮음,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과천, 진인진, 2017).

정근식·채수홍 엮음,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과천: 진인진, 2018).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서울: 통일연구원, 2020).

최현규·노경란, 『북한 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OPUS) 분석 연구, 2007~2016』(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키타무라 가즈유키(喜多村和之), 『고등교육의 혁신』, 김도수 옮김(서울: 교육과학사, 1995).

한만길 외,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2000).

Altbach, Philip G. 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도전』, 신정철 외 옮김(파주: 교육과학사, 2007).

2) 논문

강충열, “5.31 교육개혁이 학교교육 혁신에 미친 영향,” 『5.31 교육개혁과 학교교육의 혁신』, “5.31 교육개혁 20주년 연속 세미나”(2015).

권옥현 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성과관리 방향”(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2), 3쪽.

김경미,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북한의 원격교육체제 탐색: 「고등교육」 기사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5권 2호(2022), 278~326쪽.

김계수·이춘근,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김수연, “북한 간부양성체제의 변천 및 특징,”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3호(2020), 41~76쪽.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 수학연구 동향 분석과 남북 수학협력 방안,”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1호(2022), 123~165쪽.

김유연·유성상, “북한 고등교육 학계에서 인식한 ‘세계교육발전 추세 분석,’” 『아시아 교육연구』, 제22권 4호(2021), 859~887쪽.

박상완, “개방형 자율학교의 학교혁신 사례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7권 2호

- (2009), 177~201쪽.
- 변학문,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통일과 평화』, 제 10권 2호(2018), 81~113쪽.
- 엄현숙,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4호(2019), 77~111쪽.
-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관한 연구: 남북한 사이버 교류협력을 위한 시론,”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3호(2020), 77~104쪽.
- 이인정, “김정은 시기 북한 고등교육 변화와 남북 대학 협력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제70호(2021), 239~260쪽.
- 임수호, “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158호(2022).
- 조정아,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개혁 전략,” Online Series (2014.9.16).
- 한만길·손계림,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대학교육』, 제81호(1996), 50~60쪽.
- 현인애, “북한판 카이스트, 이과대학 현주소,” 『북한』, 제567권(2019.3).

3) 기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북한 법령집 하』(서울: 국가정보원, 2020).
- 통계청 보도자료 2011,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miri.html?fn=e14df6300214231055214&rs=/assist/synap/preview>(검색일: 2022년 1월 24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Owens, R. G., *Organizational Behavior: Instructional leadership and school reform*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2001).

2) 논문

- Passow, A.H.,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in School Reform," in T. J. Sergiovanni and J. H. Moore(eds.), *Schooling for Tomorrow: Directing reforms to issues that count* (Needham Heights, Mass: Allyn & Bacon, 1989), pp.13~39.
- Scjultz, T. W.,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 No.1(1961), p.15.
- Simmons, J., "Reforming education and society: The enduring quest," in J. Simmons(ed.), *Better Schools: International lessons for reform* (NY: Praeger Publishers, 1983). p.9.
- UNESC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ducation and Literacy" (2018).

Innovation in North Korean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Professionalism of Professors

Oum, Hyun suk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changes at North Korean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Recently in North Korea, it has become very important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professors.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First, state-led higher education reform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ideological theories of the Kim Jong Un era and is gaining momentum in connection with the theory of full-scale development of socialism. Second, North Korea is trying to innovate universities by adding new systems rather than changing the basic structure of universities. Third, university professors can be the subject of innovation with the aim to develop world-class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but internal dynamics or mechanisms limit the change. Fourth,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chelor's-master's-doctorate degree system, excellent students are avoiding going to graduate school. This study expands the discussion

on th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by examining the real problems that North Korean universities face as they try to innovate.

Keywords: North Korea, university, innovation, reform, higher education